

# 취 임 사

2017. 3. 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이 병 권

KIST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KIST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제게 주어진 소임에 신명을 바칠 각오로 제24대 KIST 원장에 취임합니다.

제게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다시 한 번 맡겨 주신 것은 지난 3년간 추진한 변화와 혁신 노력을 이어나가, KIST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다음 반세기 초석을 다지고, 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동력으로 만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KIST 가족 여러분!

지난 3년은 KIST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실천해 온 숨가쁜 여정이었습니다. KIST 고유의 정체성에 맞는 도전적 연구분야를 개척하고, 연구와 혁신의 결과물이 실험실에 머물지 않

고, 우리 삶의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출연(연) 기관 평가 최초이자 유일한 '매우우수' 등급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 정보·언론기관인 톰슨로이터는 KIST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공공연구기관에 2년 연속 6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총 기술료 규모가 약 3,000억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치매 조기진단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뇌과학 연구진이 미국 NIH Brain Initiative 프로그램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Science 본지를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톱 수준의 논문 게재 및 대내외 수상 등을 통해 KIST 연구성과의 수월성을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KIST는 이제 명실공히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소로 당당히 자리  
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KIST 가족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국가 리더십 부  
재 상황 속에서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국 이  
익을 최우선시하는 신고립주의 확산, 북한 핵  
위협과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외교 갈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산업구조의 지  
각변동 등은 대한민국호를 한치 앞도 내다보  
기 어려운 격랑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당면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글로벌 산업경쟁력에 새로운 활  
력을 불어넣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의 몫임

니다.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KIST  
원장으로서 무거운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KIST는 시대적 소명을 마주하고 있  
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 미래  
국가·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선제적으로 대비  
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KIST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초연결·초지능·대융합으로 상  
징되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맞이하  
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경제·산  
업구조 전반의 지각변동을 의미합니다. 4차 산  
업혁명으로 도래할 새로운 경제·산업 지형을  
선점하는 것은 곧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직  
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KIST는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본격 등장하기 이전부  
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차세대반도체, 로봇·미디어연구소를 설치하고, 양자컴퓨팅, 나노신경망 인공지능 연구사업 본격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바이오닉스, 초경량고강도 소재와 같은 미래를 여는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여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3년, KIST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잡은 것은 개방형 연구사업입니다. 치매, 조류독감, 녹조 등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난제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는 모습에 대해 많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KIST의 연구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역량을 결집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KIST는 KIST 유럽연구소 등 해외 거점을 협력의 교두보로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분야별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기관과 적

극적인 인력교류와 다양한 협력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KIST의 지난 50년 압축성장의 기적은,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상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우리의 성공비결을 배우려는 수많은 후발개도국들의 기대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후발개도국에 대한 경험전수와 지원은 51년전 과학외교와 대외원조의 산물로 설립된 KIST가 말아야 할 역사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V-KIST 사업으로 KIST의 과학기술 경험전파가 비로소 본격화된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다 체계화된 방식으로, 더 많은 개도국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그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 KIST가 위치한 홍릉 단지는 수도권에 위치한 고급두뇌의 집적지로, 대한민국 발전경험을 고스란히 보유한 코리아 모델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지난 3년간 KIST는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홍릉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IST와 홍릉의 여러 대학들이 어울려 핵심플랫폼을 만들고, 그 기반 위에서 혁신적 중소·창업기업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홍릉은 바로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입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답도 이곳 홍릉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KIST를 신명나고 역동적인 연구현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연구자에게 은퇴는 나이가 아니라 연구역량이 소진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연구현장을 지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연구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KIST 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KIST 가족 여러분!

우리 과학기술계는 선진기술을 숨 가쁘게 따라잡기 위한 추적형 연구과정에서 형성된 관행과 방식을 선도·창의·융합형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는 물론 의식과 문화까지 바꾸어 가

야합니다. KIST가 중심에서 변화와 혁신이 우리나라 연구현장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선도해 나아가자 합니다.

지난 반세기, KIST의 역할이 선두에서 과학기술계를 이끄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한 가운데서 다른 연구주체들과 소통, 화합 및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KIST만의 발전을 넘어 우리 과학기술계의 변화를 이끌고 국민과 국민이 기대하는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 그리고 가슴에서 발까지입니다. 생각만 하다 마음이 시키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가슴에만 담아두고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 결국, 옳은 것을 준비하여 실제로 행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KIST가 많은 성과를 내며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긴 여정에 함께해주신 KIST가족 여러분들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격랑 속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호는 다시금 미래 희망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KIST가 국가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더욱 성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향한 희망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취임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